

## 아로마테라피 계획행동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현정<sup>1,\*</sup> · 김용신<sup>2,†</sup>

<sup>1</sup>구미대학교 헤어메이크업네일아트과, 겸임교수

<sup>2</sup>중원대학교 뷰티메디컬과, 교수

(2024년 3월 25일 접수: 2024년 4월 22일 수정: 2024년 4월 23일 채택)

### Effect of aromatherapy planned behavior on behavioral intention

Han Hyun Jung<sup>1,\*</sup> · Yong-Shin K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Hair Makeup Nail Art, Gumi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sup>2</sup>Department of Medical Beauty Care Jungwon University, Professor

(Received March 25, 2024; Revised April 22, 2024; Accepted April 23, 2024)

**요약** :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 요인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계획행동이론으로 아로마테라피의 계획행동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아로마테라피 계획행동이 행동의도 독립변수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아로마테라피 행동의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1의 “아로마테라피 계획행동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검증 결과로 아로마테라피 계획행동 중에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주관적 규범이 클수록 참여의도 역시 상승하는 것을 확인된 선행연구와 본 연구가 유사한 결과로 검증이 일치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아로마테라피 계획행동이 행동의도를 통해 아로마테라피의 시장점유율상승, 스트레스감소,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시사한다.

**주제어** : 아로마테라피, 에센셜오일, 행동의도, 계획행동, 천연향료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romatherapy planned behavior on behavioral intention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f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s factors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behavioral intention of aromatherapy planned behavior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the behavioral intention of aromatherapy.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1, “Aromatherapy planned behavior will have an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previous research confirmed that the greater the attitude,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subjective norm during aromatherapy planned behavior, the

†Corresponding author

(E-mail: dydtls0619@naver.com)

\* This article is a revised version of the first author's university doctoral thesis.

\* 이 연구는 2023년 남부대학교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하여 작성

higher the participation intention. The verification was consistent with similar results between this study and this study. These results suggest that aromatherapy planned behavior will contribute to increasing aromatherapy's market share, reducing stress, and improving health through behavioral intention.

*Keywords : aromatherapy, essential oils, behavioral intention, planned behavior, natural fragrance*

## 1. 서론

최근 늘어난 스트레스 관리에 주목하여 아로마와 연관된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1]. 이에 고객의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아로마테라피의 계획행동과 계획의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2].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규범, 행동에 관한 태도, 인지된 행동통제 계획행동이론을 바탕으로 계획행동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아로마테라피 계획행동과 행동의도를 규명함으로써 아로마테라피의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키고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을 개선,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1.1. 이론적 배경

#### 1.1.1. 아로마테라피

민간요법의 한분야로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의 근본이 되는 향기식물에서 추출한 방향성 물질이 피부나 후각을 통해 몸의 내부로 전달되는 방법이다[3]. 이러한 에센셜 오일에 포함된 생화학적 성분은 인간의 심리 및 감정치리에 영향을 주는 자연치료요법이다[4]. 이는 대체요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5]. 에센셜 오일과 마사지를 결합한 아로마테라피 관리는 일반 관리에 비해 치료 효과가 크며, 근육이완, 혈액 순환 촉진, 통증 완화, 두통, 신진대사 촉진효과 등의 생리적 효과를 비롯하여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감소 효과가 확인되었다[6].

#### 1.1.2. 계획행동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따라 행동의도가 결정되고 행동의도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한다[7,8]. 계획행동이론은 바람직한 행동이론을 확장시킨 모형에 지각된 행위를 억제 후 변인을 추가하여 나타내었다[9]. 행동계획과 행동에 확인된 행동억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새로운 요소로

작용해서 다양한 행동이 통제력 외에 있다고 감지되면 그런 행동을 실시하지 않을 확률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10]. 또한 행동의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행동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가해 행동통제 능력에 대한 반응이 클때 행동의도보다 행동에 직접적인 현상을 가할 수 있다[11].

#### 1.1.3. 행동에 대한 태도

행동에 관한 태도란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호의적, 비호의적으로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학습된 방법으로 계획된 행동에 대한 신념과 결과로 각각의 평가로 결정되며 행동에 대한 대다수의 평가 정도를 의미하므로 개인적인 성향이 강력하게 작용한다[12]. 사회심리학에서 중요한 요인이 행동에 대표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행동에 관한 태도가 바람직할 때 행동을 도전하려는 의도가 높으므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행동하기 시작전에 행동의도에 영향을 준다[13].

#### 1.1.4. 주관적 기준

주관적 기준은 행위에 관한 기준인 소신으로 자신 주위에 영향력 있는 조직이 특별한 행동을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감지된 량과 그 마음에 받아들여려는 각자의 요인을 의미하며 사회적 영향, 사회적 압력으로 나타내며 콘텐츠로는 사회적 규칙을 뜻한다[14]. 계획행동이론의 변화는 수치 중 주관적 규칙은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에 반해서 행동의도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양상을 보이며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의 선행변수인 준비태세와 주관적 규칙 외에 감지된 행동통제를 더하여 행동계획 외에 행동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모형이 계획동작이다[15].

#### 1.1.5. 행동의도

계획행동학문의 특징적 동작은 본 동작이 몸에

힘을 가세하여 이동되는 이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행동동작 의도로 매개변인을 통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천의도는 태도와 주관적 규칙, 감지된 행동실천통제의 영향을 발휘한다[16]. 한편 행동의도는 실천을 바탕으로 성취 욕구가 있는 계획상태의 실천을 통해 가지적이며 행동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7]. 계획한 행동 관계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시간, 새로운 데이터, 의도의 안전성, 예상하지 못한 사건 등이 통제가 될 때 행동 예측의 정확성을 키울 수 있으며 행동의도 감지가 가능하다[18].

## 2. 연구방법

### 2.1. 연구모델 및 가설설정

#### 2.1.1. 연구 모델

본 연구는 아로마테라피의 계획행동과 실천행동에 관하여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아로마테라피 계획행동이 행동의도에 주는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 2.1.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아로마테라피 계획 행동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1-1. 아로마테라피 태도는 아로마테라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아로마테라피 주관적 규범은 아로마테라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아로마테라피의 지각적 행동조절은 아로마테라피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4. 연구 및 분석 방법

본 설문 기간은 2021년 10월 24일-2022년 6월 28일로 진행하였으며, 표본은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20세 이상의 남성·여성을 표본으로 시행했다. 배포된 설문 500부를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에서 450부를 회수했으며, 회수된 설문중 42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분석은 25.0 Ver.를 활용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 3.1.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450명 중 결측인원을 제외한 4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직업, 결혼상태, 월소득, 학력 등으로 분류했으며, 연구에 선정된 표본은 모집단의 대표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 분석결과 성별로 남자 154명(36.0%), 여자 274명(64.0%)으로 차지했고, 나이는 20대 72명(16.8%), 30대 132명(30.8%), 40대 144명(33.6%), 50대 이상 80명(18.7%)으로 분석되었다. 결혼여부는 기혼 243명(56.8%), 미혼 185명(43.2%)으로 차지했고, 최종학력은 고졸이하 49명(11.4%), 전문대학 재학중 및 졸업 67명(15.7%), 4년제대학교 재학중 및 졸업 270명(63.1%), 대학원 재학중 및 졸업 42명(9.8%)으로 분석되었다. 직업으로 사무원 169명(39.5%), 전문직업 75명(17.5%), 주부 69명(16.1%), 판매직/서비스직 34명(7.9%), 기술업 28명(6.5%), 학생 27명(6.3%), 공무원 26명(6.1%) 순서로 차지했고, 월 평균 소득금액은 2백만원 미만 51명(11.9%), 2백 - 3백만원 미만 76명(17.8%), 3백 - 4백만원 미만 83명(19.4%), 4백 - 5백만원 미만 71명(16.6%), 5백만원 이상 147명(34.3%)으로 차지됐다. 결과는 아래의 [Table 1]와 확인할 수 있다.

### 3.2.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개념을 바람직하게 측정하였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개념 적합성과 내용 적합성으로 분류된다. 개념 적합성은 측정도구가 검증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측정하였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법이고, 내용타당성은 측정도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을 기준으로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번 검증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방대한 자료를 최대한 줄여서 공통된 중요한 요소들을 추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19]. 요인추출모형에는 개념적합성 중 판별적합성의 확보를 위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기법인 주성분분석을 활용하였고 요인회전법으로 는 요인들 간의 상호 독립성을 확보하여 회전법인 Varimax 회전 방식을 활용했으며, 평가규정으로 는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가 0.40 이상으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division	Frequency (N)	percent(%)
gender	man	154	36.0
	woman,	274	64.0
age	20's	72	16.8
	30's	132	30.8
	40's	144	33.6
	50's over	80	18.7
married	single	185	43.2
	married	243	56.8
Highest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49	11.4
	junior college Attending or graduate	67	15.7
	university Attending or graduate	270	63.1
	Graduate school Attending or graduate	42	9.8
job	professional occupation	75	17.5
	office job	169	39.5
	technical job	28	6.5
	Sales/service positions	34	7.9
	public official	26	6.1
	student	27	6.3
	housewife	69	16.1
average monthly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51	11.9
	Less than 2-3 million won	76	17.8
	Less than 3 to 4 million won	83	19.4
	Less than 4 to 5 million won	71	16.6
	More than 5 million won	147	34.3
	total	428	100.0

로 결정하였다[20]. 신뢰도는 비교분석 가능한 독립된 측정법에 의해 대상을 측정하는 경우 결과값이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말하며, 같은 개념에 대한 측정을 반복했을 때 같은 측정값을 얻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본 검증에서는 측정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했고, 0.60 이상은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

3.2.1. 계획행동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계획행동에 대한 적합성과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측정결과 고유값이

1 이상이 되는 총 3종의 요인이 마지막 단계에 추출되었으며, 이 요인들에 의하여 전체 분산에서 설명이 가능할 부분은 모두 67.002%로 확인 할 수 있다. 각각의 하위요인의 설명력으로 요인 1 (23.529%)로 '태도'로 지지하였고, 요인 2 (23.147%)은 '주관적 규범'으로 지지하였으며, 요인 3(20.327%)으로 '지각된 행동통제'로 지지하였다. 이 3종의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가  $\pm 0.4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적합성이 보유했 것으로 검증되었고, 신뢰도도 0.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2. Verification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planned behavior

factor	question	division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 1 attitude	1. Receiving aroma spa therapy is good for me.	.822	.203	.114
	2. I like receiving aroma spa therapy.	.810	.192	.092
	3. Receiving aroma spa therapy is beneficial to me.	.785	.305	.190
	4. Receiving aromaspa therapy is valuable to me.	.778	.285	.154
	5. I am in favor of receiving aroma spa therapy.	.760	.257	.179
	6. Receiving aroma spa therapy will bring good results to me.	.692	.331	.151
Factor 2 subjective norm	11. People around me will think positively about me receiving aroma spa therapy.	.247	.800	.215
	7. People around me support me receiving aroma spa treatment.	.284	.796	.205
	9. People around me will like me receiving aroma spa therapy.	.301	.764	.160
	8. People around me will recommend that I receive aroma spa therapy.	.306	.751	.180
	10. People around me will understand that I receive aroma spa therapy.	.236	.748	.269
	12. People around me will agree to my receiving aroma spa therapy.	.262	.744	.272
Factor 3 perceived action control	15. Whether or not I use aroma spa therapy depends entirely on my will..	.211	.127	.766
	13. It is easy for me to receive aromatherapy therapy.	.119	.157	.754
	14. It is possible for me to receive aromatherapy.	.197	.254	.743
	16. I have the right to decide whether to receive aroma spa therapy..	.279	.114	.740
	17. I have enough money to get aroma spa therapy.	.029	.219	.707
	18. I have enough time to get aromatherapy.	.008	.197	.690
Eigenvalues		4.235	4.166	3.659
Variance explanation (%)		23.529	23.147	20.327
Cumulative variance explanation (%)		23.529	46.676	67.002
Reliability (Cronbach's $\alpha$ )		.911	.919	.857
KMO=.932, Bartlett's test $\chi^2 = 4873.800$ (df=153, p=.000)				

Table 3. Verification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behavioral intention

Factor	question	division
		Factor 1
Factor 1 behavioral intention	2. I will use aroma spa therapy.	.891
	1. I am willing to use aroma spa therapy.	.879
	5. I am willing to use aromatherapy.	.864
	3. I plan to use aroma spa therapy.	.842
	4. I want to use aroma spa therapy.	.761
Eigenvalues		3.600
Variance explanation (%)		71.992
Cumulative variance explanation (%)		71.992
Reliability (Cronbach's $\alpha$ )		.902
KMO=.857, Bartlett's test $\chi^2 = 1367.041$ (df=10, p=.000)		

3.2.2. 행동의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행동의도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검증결과 고유값이 1을 넘는 총 1개의 요인이 마지막으로 분리되었으며, 이 요인들에 의해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합하여 71.992%로 표시하고 있다. 각각의 요인의 설명력을 보게되면 요인 1(71.992%)은 '행동의도'로 확인하였다. 이 한가지의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가  $\pm 0.40$  이상으로 나타나 분리된 요인은 적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신뢰도도 0.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치로 볼 수 있다.

### 3.3. 가설의 검증

#### 3.3.1. 아로마테라피 계획행동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아로마테라피 태도는 아로마테라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아로마테라피 주관적 규범은 아로마테라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아로마테라피 지각적 행동통제는 아로마테라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로마 치료계획행동이 행동의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로 [Table 4]와 같다. 연구결과로, 아로마치료 계획행동과 행동의도 연구는 전체의 45.9%를 지지하였으며,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말하자면, 아로마테라피 계획행동의 하위요인 별 태도( $\beta = .392$ ,  $p < .001$ ), 지각된 행동통제( $\beta = .322$ ,  $p < .001$ ), 주관적 규범( $\beta = .107$ ,  $p < .05$ )은 행동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로마테라피 계획적참여 시 태도, 심리적 행동통제, 주관적 규범이 상승할 수록 행동의도가 상승되는 것으로 확인 할 수있다. 한선옥·장창곡은 계획행동이론을 활용하여 아로마테라피교육 참여행동요인 연구결과, 미용교육에 대한 태도( $\beta = .480$ ,  $p < .001$ ), 행동통제( $\beta = .251$ ,  $p < .001$ ), 주관적 규범( $\beta = .188$ ,  $p < .01$ )의 순차적으로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지지되었다[21]. 아로마테라피 교육을 통한 태도, 행동조절, 주관적 규범이 클수록 아로마테라피교육 참여행동이 큰 것으로 보고된 연구와 일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동일한 행동의도, 확장된 계획행동 이론을 통하여 행동의도인 아로마관리 방문의도의 예상한 연구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력이 클수록 참여의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와 본 연구가 유사한 결과로 검증결과가 일치하였다[22].

#### 4.3.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4. Effects of aromatherapy planned behavior on behavioral intentio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ehavioral intention				
		B	S.E	$\beta$	t	p
(a constant)		.223	.186		1.200	.231
attitude		.471	.056	.392	8.457***	.000
subjective norm		.118	.054	.107	2.169*	.031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315	.041	.322	7.684***	.000
statistic		R <sup>2</sup> = .459, Adj R <sup>2</sup> = .455, F-value = 120.019***, p = .000				

\*p<.05, \*\*\*p<.001

Table 5. Summary of hypothesis verification results

Division	Hypothesis	Selected or not
1	Aroma treatment planning behavior will influence behavioral intention.	selection
1-1	Aroma treatment attitude will affect aroma treatment behavioral intention.	selection
1-2	Aroma therapy subjective norms will influence aroma therapy behavioral intentions.	selection
1-3	Perceptual and behavioral control of aroma therapy will affect the behavioral intention of aroma spa therapy.	selection

#### 4. 결론

본 연구결과로 아로마테라피 계획행동이론(TPB)모형을 적용해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이 행동의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설1의 검증으로 “아로마테라피 계획행동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아로마테라피 계획행동과 행동의도의 해석으로 전체의 45.9%를 설명하고 있으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아로마테라피 계획행동의 하위요인별 태도( $\beta=.392$ , p<.001), 지각된 행동통제( $\beta=.322$ , p<.001), 주관적 규범( $\beta=.107$ ,

p<.05)은 행동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양의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아로마테라피 계획행동 중에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주관적 규범이 클수록 참여의도 역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로 가설 “아로마테라피 계획행동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아로마테라피 계획행동이 행동의도로 인해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동의도에 이어 행동실천을 예측하여 아로마테라피의 시장점유율 상승 및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에 반드시 기여할 것으로 시사한다.

## References

1. J. O. Lee, G. S. Yun, "A Study on the Pain Reduction Effect of Aroma Skin Massage", *The Social Leisure welfare Soc. Kor*, Vol.1, No.2 pp. 93-115, (2020).
2. S. H. Heo, C. S. Youn, "Exploratory Research of Aroma Effect by Constitution", *Beauty Industry Research*, Vol.6, No.1 pp. 35-54, (2012).
3. H. M. Kim, Y. J. Jung, "Meta-analysis of the Effect of Aroma Therapy on Stress-related Variables", *J. Humanities Soc. sci*, Vol.11, No.3 pp. 1453-1467, (2020).
4. B. S. Yoo, "An Integrated Approach to Naturopathy for Emotional-therapy : Focused on the Colortherapy and the Aromatherapy", *J. Natural Healing Edu.*, Vol.3, No.1 pp. 103-125, (2019).
5. M. K. Kim, " Effects of Awareness, Efficacy, and Knowledge Level of Aroma Essential Oil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Purchase Behavior Intention", *Konkuk University*, pp. 1-3, (2023).
6. J. H. Lee, "The Effect of Essential Oil Recognition on Aromatherapy Satisfaction and Stress", *Westminster University*, pp. 19-29, (2020).
7. S. J. Jin, "The Research of the Predictable Variables and the Group Difference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y with or without Self-Suicidal Intention in the Self-Injuring Behaviors of Adolescents", *Kor. Soc. for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Vol.38, No.2 pp. 255-280. (2022).
8. Doll, J & Ajzen, I. Accessibility and stability of predictors i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3, No.5 pp. 754-764, (1992).
9. E. S. Pak, "The Effects of Instructor's Feedback and Learners' Self-regulated Learning Skills on College Students' Achievement and Participation in Facebook-based Discussion", *Seokyeong University*, pp. 9-18, (2022).
10. N. S. Jung, Y. G. Kim,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of Commons-Management Intention using Expa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 Focused on the management of the Darangyi-paddy in Gachun, Namha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Vol.23, No.4 pp. 169-178, (2017).
11. Madden, T.J., Ellen, P.S., Ajzen, "A comparis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18, No.1 pp. 3-9. (1992).
12. J. H. Yang, B. C. See, "The effect of the quality of online (virtual) convention service on participants' intention to re-participate in online convention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47, No.1 pp. 111-130, (2023).
13. E. J. Jang, Y. K. Sim, S. J. Lee, "The Relationship Among Planning Behavior, Exercise Intention,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the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Kor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Vol.28, No.1 pp. 55-67, (2020).
14. O. H. Kim, Y. Mun, S. J. Lee, "A Study for Consumer's Consumption Behavior of Golf Goods Based on the Expanded Planned Behavior", *Korean Society of Golf Studies*, Vol.14, No.4 pp. 37-53, (2020).
15.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Organizational Behaviou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50, No.2 pp. 179-211, (1991).
16. Ajzen, I,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32, No.4 pp. 1-20, (2002).
17. Mohiyeddini, C., Pauli, R., & Bauer, S, "The role of emotion in bridging the intention-behaviour gap: The case of sports participation",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Vol.10, No.2 pp.226-234.



- (2009).
18. McEachan, R.R.C, "Conner, M., Taylor, N., & Lawton, R.J. Prospective prediction of health-related behaviors wit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meta-analysis", *Health Psychology Review*, Vol.5, No.2 pp.97-144. (2011).
  19. S.L.Chae,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ology (3rd ed.)", *Seoul: BAMN Books*, (2013).
  20. J. J. Song, "SPSS/AMOS statistical analysis method", *Seoul: 21st Century History*, (2008).
  21. S. O. Han, C. G. Chang, "Analysis of Participation in Beauty Education Behavior Factors by Applying Planning Behavior Theory". *J. Korean Soc. Beauty And Art*, Vol.20, No.2 pp. 151-161, (2019).
  22. S. K. Kim, "Explore the Activation of Marine Sports Experience by Applying the Extended Planned Action Theory",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4, No.2 pp. 109-118, (2020).